



# 보도자료

영천  
정도  
자유한국당  
국회의원  
**이만희**

2018. 10.12(금)

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

전화: 02) 784-5901 / FAX: 02) 788-0302 / E-mail: yc20002@naver.com

## 국정감사 보도자료

**이만희 의원, 농업분야 R&D는 눈먼돈?  
혈세가 줄줄샌다**

**1.농촌진흥청, 최근 6년간 부당집행 355건,  
부정사용액 5억 6,711만원**

**2.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최근 6년간  
연구부실로 중도포기 114건, 환수율은 53.1%**

**3.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최근 6년간  
649개 과제에서 20억에 달하는 부당집행 발생**

# 농촌진흥청, 최근 6년간 부당집행 355건, 부정사용액 5억 6,711만원

-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간 355건, 부정사용액은 5억 6,7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(경북 영천시·청도군, 농해수위)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「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」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기관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6,711만원(355건)으로 집계

최근 6년간 부당집행 건수 및 사용액

연도	적발건수	부당 사용액
2013	114	1억 7,695만원
2014	27	2,337만원
2015	102	1억 6,099만원
2016	59	1억 1,698만원
2017	35	7,032만원
2018.8말	18	1,850만원
<b>계</b>	<b>355건</b>	<b>5억 6,711만원</b>

- 유형별로는 ▲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매 금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129건(2억 9,700원, 36.3%)으로 가장 많았으며 ▲개인용으로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에 등록하거나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청구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이 102건(1억 1,838만원, 28.7%) ▲식사비 초과집행 등 회의비 단가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이 83건(8,871만원, 23.4%) 순으로 나타남

- 이만희 의원은 “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” 며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“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농진청 차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” 고 지적

##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최근 6년간 연구부실로 중도포기 114건, 환수율은 53.1%

- 농식품부 R&D 전담관리 기관인 농기평(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)의 관리감독 역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(경북 영천시·청도군, 농해수위)이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「발주과제 중단현황」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연구성과 저조 등 부실연구로 도중에 중단된 과제는 총 114건, 투입 예산만 376억원 7,400만원에 달함.
- 그러나 이 중 농기평이 환수결정을 내린 과제는 12건, 환수대상금액도 13억 2,9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중 미환수액이 6억 2,300만원에 그치는 등 환수율은 53.1%

농기평 발주과제 중단현황(2012~2017)

	평가중단			협약해약	합계
	미흡	매우미흡	상대중단		
건 수	19	2	79	14	114건
투입 예산	44억 5,100만원	6억 2천만원	279억 5,100만원	46억 5,200만원	376억 7,400만원

농기평 발주과제 환수현황(2012~2017)

환수대상		환수액 (B)	미환수액 (A-B)	환수율 (B/A)
대상과제	금액(A)			
12건	13억 2,900만원	7억 6백만원	6억 2,300만원	53.1%

# 농기평, 최근 6년간 연구비 649개 과제에서 20억원에 달하는 부당집행 발생

-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.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49개의 과제에서 20억원에 달하는 부당집행이 발생, 연구개발비 유용이나 횡령은 17개 과제에서 6억 2,900만원, 해당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오집행은 632개 과제에서 13억 9,700만원

농기평 부당 집행 과제 수 및 집행 금액(2012~2017)

부정 집행		오 집행		합계	
과제	금액	과제	금액	과제	금액
17건	6억 2,900만원	632건	13억 9,700만원	649건	20억2,600만원

- 이 중 유용이나 횡령 등 부정집행 환수율은 33.1%로 4억 2,4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며, 오집행 환수율은 74.8%로 미환수액은 3억 5,200만원에 달함

부정집행 환수 현황(2012~2017)

환수대상		환수액 (B)	미 환수액 (A-B)	환수율 (B/A)
대상과제	금액(A)			
17건	6억 2,900만원	2억 500만원	4억 2,400만원	33.1%

오집행 환수 현황(2012~2017)

환수대상		환수액 (B)	미 환수액 (A-B)	환수율 (B/A)
대상과제	금액(A)			
632건	13억 9,700만원	10억 4,500만원	3억 5,200만원	74.8%

- 이만희 의원은 “연구가 불량해도 일시적 용역 참여제한 외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” 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
- 더불어 “부당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등 R&D사업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농업분야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관행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” 고 강조